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쿠바

# 목차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 I.일반

1.개요	4
2.한국과의 관계	5
3.경제현황	7
4.정치	10
5.주요산업	12

## II.무역

1.수출입	13
2.한국과의 수출입	22
3.수출 유망항목	25
4.무역협정	27
5.수입규제 및 관세	28
6.통관 · 물류	30

## III.투자

1.투자환경	32
2.외국인직접투자	36
3.한국기업 투자	37
4.투자진출방식	39
5.외환	42
6.노무	43
7.세무	46
8.지식재산권	47
9.청산 및 철수	48

## IV.참고정보

1.시장특성	49
2.비즈니스 에티켓	52
3.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54
4.현지 진출 성공사례	

5.출입국 안내	55
6.유관기관	56
7.물가정보	58
8.출장정보	60
9.생활정보	62
10.KOTRA 무역관 안내	68
11.전시회 정보	73
	74

# I. 일반

## 1. 국가개요

###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쿠바공화국(República de Cuba)
면적	109,884 km <sup>2</sup> (자료원 : EIU, 2023 기준)
수도	아바나(Ciudad de la Habana)
인구	11,089,511 명 (자료원 : 쿠바통계청,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3년 9월 발표))
민족(인종)	○ 백인 64.1%, 메스티조(스페인인과 아프리카흑인(또는 원주민)의 혼혈인) 26.6%, 흑인 9.3% ○ 14세 이하 15.7%, 15세~59세 62.7%, 60세 이상 21.6% ○ 남성 49.6%, 여성 50.4% ○ 중위연령(Median Age) 42.3세
언어	스페인어
종교	가톨릭교 85%, 그 외 신도교, 유대교 등, 무신교(3.9%)
기후	○ 아열대 기후 ○ 12~2월: 18~27℃, 3~11월: 24~32℃ ○ 건기: 11~4월, 우기: 5~10월
국가원수	○ 대통령 : 디아스 카넬(Miguel Diaz-Canel) - 취임일: 2023년 4월 19일 * 2018년 4월 19일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 이후 헌법개정을 통하여 2019년 10월 10일 부활한 대통령제 하에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 * 2023년 4월 19일 재선 - 임기: 5년

## 2. 한국과의 관계

###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 국교 수립일

2024-02-14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2024.2.14))

####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협정 없음	2019-01-01	없음	

#### 한국교민 수

22 명 (자료원 : KOTRA 아바나 무역관, 2024년 5월 기준)

###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 정치

우리나라와 쿠바는 2024.2.14(수)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쿠바 수교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온바,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양 국민 간 우호인식 확산이 금번 양국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 경제

쿠바는 우리나라를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KOTRA는 1996년부터 10여 년간 아바나 국제박람회에 정기 참가하여 신뢰를 구축한 이후 2005년 9월 12일 무역관을 공식 개설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자동차, 가전제품, 타이어 등 대기업 제품들이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쿠바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양국 간 산업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전력분야로, 쿠바의 에너지 혁명 추진 시기에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형 디젤 발전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2005~2010년간 총 464대(888MW)를 공급하였고 이는 당시 쿠바 전체 전력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또한 삼성, LG 등의 경우 쿠바 가전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 기아차도 2014년까지 연간 3천 대 이상 판매고를 기록하였다. 2015년부터는 중국의 장기저리 차관 공세로 자동차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으로 대체된 상태임에도, 렌터

카 시장 등에서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 2021년 말에는 현대차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상황 악화로 외화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차량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공식적인 통계는 부재하나 현대 및 기아차량의 수입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쿠바 전체 차량수입량은 2000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쿠바 간 민간, 정부 간 경제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5년부터 기재부 주관으로 쿠바 정부와 개발협력공유사업(KSP)이 추진되고 있는데 쿠바의 역점산업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희장비 이전, 기술학교 운영 등 CSR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KSP 사업은 쿠바언론에도 지속해서 보도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쿠바의 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를 진행했으며, 23년~24년에 걸쳐 재활용분야 정책수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연간 기준 우리나라의 대쿠바 수출액은 3,569만 달러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158.4% 상승한 수치이다. 한국의 대쿠바 수출액은 미-쿠바 관계 개선 직후인 2017년 7,078만 달러로 고점을 찍은 이후 미국의 대쿠바 제재 강화, 쿠바정부의 수입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출보험 불가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3년 연간 대쿠바 수입액은 총 684만 달러로, 일반적으로 수입규모는 400만 달러~700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문화

쿠바에는 2013년 이후 쿠바 국영TV에 '내조의 여왕' 등 한류드라마 5편이 방영되면서 한류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수년간의 공백 이후 한국 드라마 '공주의 남자'를 방영하였으며, K-POP이 한류열기에 불을 지피면서 쿠바 내 한류문화 동호회 '아르코'(ArtCor)의 회원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르코는 자체 한류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류의 전국적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바나 국제박람회 국가관으로 매년 참가 중이며 쿠바 국제도서전, 아바나 비엔날레, 아바나 발레페스티벌 등에도 간간히 한국 문화단체나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2024년에는 각각 아바나 국제박람회(FIHAV)에 한국홍보관을 설치해 우리 문화, 기술과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한 바 있다.

2022년 8월, 쿠바 아바나에 최초의 한국문화센터 및 한글학교가 오픈하는 한편, 국내 프로야구(호세 페르난데스, 아리엘 미란다, 오드리 사머 데스파이네, 야시엘 푸이그) 및 프로배구(레오나르도 레이바)에서 쿠바선수들이 활약하는 등 양국 간의 문화, 스포츠분야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다.

### 3. 경제현황

####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	-10.9	1.3	1.8	2	
명목GDP (십억\$)	107.4	22.7	25.2	26.8	
1인당 GDP (PPP, \$)	12,570	13,390	14,600	15,530	
1인당 명목 GDP (\$)	9,500	2,020	2,250	2,390	
정부부채 (% of GDP)	63.2	139	129.1	121.4	
물가상승률 (%)	11.9	152	76.1	62.3	
실업률 (%)	1.4	2.8	1.8	1.8	
수출액 (백만\$)	1,703	1,966	2,170	2,183	
수입액 (백만\$)	7,230	8,431	9,833	9,753	
무역수지 (백만\$)	-5,527	-6,465	-7,663	-7,570	-
외환 보유고 (백만\$)	8,253	7,203	4,104		
이자율 (%)	2.25	2.25	2.25	2.2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	24	24	24	

<자료원 : EIU, 쿠바중앙은행, World Bank>

#### 나. 경제 동향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구소련의 경제 및 군사원조 중단(당시 전체 교역량의 80% 이상을 구소련 블록에 의존)을 경험하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고, 특히 1992년 미국의 소위 토리첼라-그레이엄 법안으로도 잘 알려진 '쿠바 민주화법' 제정을 통해 대쿠바 금수조치가 강화되면서 1990년대 초반 소위 특별시기(Periodo Especial)로 불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후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기로 하고 1993년에는 독립채산제 실시, 사적이익 용인, 농산물 자유시장이 허용됐다. 1995년에는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돼, 투자부문 개방이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니켈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전통품목 수출액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으며, 이에 쿠바정부는 경제난 타개 차원에서 배급물량 축소, 국영부문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5만 명 정도에 불과하던 자영업 일자리를 약 60만 명(23년 4월 기준)까지 확대함에 따라 민간경제가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2011년 4월 공산당전당대회시 발표된 향후 경제운용 기본 지침인 '리네 아미엔토(guideline)'에 근거해 기존의 시장경제 조치를 강화하며, 자영업 업종 확대, 중고 자동차 매매 허용, 내국인간 부동산 거래 자유화, 자영업자 소액대출 허용 등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제 확대에 따른 세금제도 정비 필요성에 따라 2012년 11월 새로운 세제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쿠바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조치를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급격한 자본주의 유입을 경계하기 위해 세제 정비, 자영업 허가수 제한 등을 통해 자영업 확산 완급 조절을 병행하는 셈이다.

쿠바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2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격적 외자유치를 위해 2013년 9월 마리엘 경제특구 개발법을 채택한 데 이어, 2014년 3월 외국인투자 개정법 118조를 발표, 관련 외자유치 행정령인 대외무역부 행정령 128 및 129조, 중앙은행 행정령 46 및 47조, 고용사회안전부 행정령 16조 등 종합적인 외자유치 활성화 법제를 마련했다. 2014년 1월 마리엘 경제특구 단지가 가동을 시작, 대대적인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으나 고용 자유화 문제 미해결,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기존 외국인 업체를 제외한 신규기업 진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2023년 11월 기준, 마리엘특구에는 21개국 소재의 기업으로부터 총 61개의 프로젝트(규모 30억 달러)가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투자 승인이 되어도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고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가시적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쿠바정부는 2019년 2월 헌법재정 43년 만에 개헌을 시행하였다. 개헌은 기존의 계획경제 및 사회주의 근간은 유지하되 제한적 사유재산의 인정,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 소련 붕괴 이후 나타난 쿠바사회의 체질변화를 성문화한 진보적 조치로 평가된다. 2021년 1월에는 1994년 이후 지속되어왔던 이중화폐제도를 단일화폐(쿠바페소)로 통합하는 화폐 단일화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재무 불건전성 및 경제 왜곡현상 안정화를 꾀하였으나 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2021년 인플레이션은 194.5%, 2022년에는 96.8%를 기록해 현지화 페소로 생활하는 일반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쿠바정부는 외환수급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 육성에 국가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쿠바 통계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151% 증가한 240만명을 기록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총 약 93만명이 방문하여 1위를 기록하였고 러시아는 전년대비 340% 증가한 18만 4000명이 방문하여 가장 많이 성장한 국가로 기록되었다. 미국관광객은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뒤로 스페인, 독일, 멕시코가 주요 관광객 출신국가로 기록되었다. 전체 관광객 수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비해 아직 42.8% 낮은 수준이지만 2021년 미국의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들어 중국의 Air China는 아바나-베이징 노선을 5월부터 운항을 재개하였고 콜롬비아의 Avianca도 12월에 아바나-보고타 직항노선을 재개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꾸준히 도입되고 있다.

2021년 8월, 쿠바정부는 기존 자영업 허가에서 진일보한 중소기업 설립, 운영 및 규제에 대한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경제 회생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롭게 설립되는 중소기업(현지명칭 미피메스 - MIPYMES)은 식품생산, 지역개발, 수출입 등 정부의 전략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4년 3월 기준 1만 1000여개의 기업이 운영 중이다. 다만 규모가 100인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MIPYMES 라도 수출입은 국영기업을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적 시장주의 조치로 평가된다. 쿠바 정부는 MIPYMES 활성화를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같이 양국 간의 화해 무드 조성 및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양국 간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2년 5월 바이든 정부에서 쿠바 가족송금 제한금액 폐지, 아바나 외 도시에 미국항공기 취항 허가 등 일부 제재 완화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반면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국무부장관으로 쿠바 이민자 출신이며 강경파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를 임명이 유력해 대쿠바 제재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쿠바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을 적용받는 국가이다.

## 다. 경제 전망

쿠바는 2014년 12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선언 모멘텀을 계기로 산업 전반에 활기가 살아나며 2015년에는 4%까지 성장률을 기록했으

나, 이후 최대 교역국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니켈 등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 하락, 허리케인 피해,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경제성장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대내외 부정적 경제충격 영향,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10.9%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의 경제 성장률도 전세계가 회복하는 와중에 1.25%에 그쳤다. 2022년에는 1.77%, 2023년에는 -1.9%를 기록하며 성장이 부진하여 2026년에서야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 경제는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산업 의존경제로 외부요인에 취약하다. 팬데믹 이전, 쿠바의 관광산업은 해외 의료인력 파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외환 수입원이며, 총 GDP의 약 10% 및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영향으로 2014년 3백만 명 규모 관광객 수가 2017년 470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는 미국 관광객 감소 여파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다. 특히 2019년 6월 미국발 크루즈 선의 쿠바 입항 금지 조치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은 약 7개월간의 국경폐쇄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외화유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2021년 추진한 화폐통합은 특혜적 환율을 적용받던 생필품 수입 공기업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강력한 가격동결 정책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물가상승을 초래하였다(2021년 152%, 2022년 76.1%). 또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국 내 생산성 악화 및 기초 생필품 등의 물자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족한 외화 유입을 위해 신설한 외국환 매장으로 주요 생필품 공급이 집중되며, 쿠바사회는 실질적인 달러화 경제권과 페소화 경제권으로 양분되었다.

쿠바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1) 미국의 대쿠바 및 대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2) 고학력, 기술직 인력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3) 만성적인 인프라 투자부족 해소, 4) 민간기업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5) 관광산업 및 전문인력 파견 정상화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對쿠바 경제제재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대쿠바 제재 강화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5년부터 미국인의 대쿠바 송금과 반이민 정책이 강화될 경우 미국주재 쿠바인의 가족송금이 크게 줄어들어 쿠바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쿠바 최대의 이슈는 전력부족으로, 최대전력사용량 대비 공급이 30~40%가 부족해 산업, 가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년 10월에는 화력발전소 고장으로 쿠바 국가전력망 가동이 중단되어 3일간 전국적인 정전이 진행되었고 11월에는 태풍 라파엘로 인해 국가전력망이 다시 중단되어 이틀 간 정전이 진행된 바 있다. 전력상황은 이후로도 개선되지 않아 발전용량은 전체 설비용량(6,558MW)의 38% 수준인 2,500MW에 그치고 있다.

## 4. 정치

### 가. 정치체제

쿠바는 “1국가 1당” 원칙에 따른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이 중앙정부를 통해 국가경제 전반을 통제하는 관리경제체제로, 정치가 경제에 선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1959년 쿠바혁명 이후 공산당 1당 체제가 60년 넘게 지속되며 발생한 상황으로, 한동안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1국가 1당” 원칙은 들림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는 1959년 혁명 이후 점진적으로 공산주의 정책을 도입해 왔으며, 이에 공산당이 모든 정치체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쿠바의 명목상 최고권력기구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인민권력국가회의(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로 5년 임기의 대의원 609명으로 구성된다. 이 대의원 중 31명이 최고 입법기관인 국가평의회(Consejo de Estado, Council of State) 의원으로 선출된다. 국가평의회는 실질적인 입법 기능을 수행하며, 행정은 인민권력국가회의에서 별도로 선출한 내각위원회(Consejo de Ministros)가 담당한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기관은 쿠바 최고인민법원(Tribunal Supremo de Cuba)으로, 최고인민법원의 판사 역시 인민권력국가회의가 선출한다.

현 대통령인 미겔 디아스-카넬은 쿠바의 최고 지도자다. 2019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맡았고 2021년 4월 라울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 쿠바 공산당 제1서기에 취임하였다. 2023년 4월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임기는 2028년 4월 18일까지이다.

### 나. 최신동향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2021년 7월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 2024년 3월 전력부족에 항의하는 지역주민 시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을 매우 낮게 예측하고 있다. GDP 하락, 통화 불안정 및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국민들의 대규모 국외탈출은 집권 공산당에 어려움이 될 것이나, 60년 넘게 구축해온 쿠바 공산당의 국가장악력을 단기간 내에 이를 약화시킬 대안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 1959년 혁명 이후 꾸준한 미국으로의 탈출로 인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미국으로 이주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반정부세력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수적인 쿠바 공산당 내부 및 군부의 저항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2023년 4월에 재선에 성공해 앞으로 5년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공산당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자체가 국민들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통로로 인식됨에 따라 투표율만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특히 2022년 11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쿠바 기준 매우 낮은 70% 이하를 기록하며, 정치권에 대한 높아진 불신이 간접적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2023년 3월 26일에 시행된 최고권력기관인 인민권력회의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을 투표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76%의 투표율을 보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쿠바 정부는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민간기업 허용 등 경제적인 개혁조치를 도입하고 있지만 급격한 자유화는 허용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미-쿠바 관계는 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재임기간(2017~2021)동안 미국인의 대쿠바 송금액 제한(분기 당 1천 달러), 아바나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미국국적기 출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조치를 시행바 있으며, 2021년 1월에는 임기종료를 9일 앞두고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재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전자입국심사(ESTA) 혜택을 받는 41개국(한국, 일본, EU회원국 등) 국민들의 쿠바 방문 시 ESTA가 취소됨에 따라 쿠바의 최대 외화획득원인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고, 테러지원국 포함 이후 많은 국제 금융기관의 쿠바 거래 기피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24년 선거 운동 기간에는 대쿠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쿠바 이민자 출신인 강경파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국무부장관 입각설이 대두되는 등 제재 강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벽에 부딪힘에 따라 쿠바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터키, 베네수엘라 등 우방과의 교역확대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쿠바의 무역 관계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책은 2022년 말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4개 주요 경제 파트너국(중국, 러시아, 알제리, 터키)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들 국가와의 채무 재조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단은 한숨을 돌릴 여유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 4월에는 베트남 부총리가 방문하여 디아스카넬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교통, 통신, 교육, 과학기술,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개의 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월에는 러시아 안보위원장이 쿠바를 방문하여 라울카스트로를 접견하였다. 또한 3월에는 쿠바 부총리와 대외무역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였으며, 러시아는 65만 배럴의 원유를 쿠바로 보내기도 하였다.

### 라. 정책 · 법령

쿠바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민간기업 설립허가 확대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심각한 외화부족과 낮은 국영기

업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노무·법률 등 제반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미국의 제재를 포함한 위험변수가 많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60년 넘게 이어온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가 잦아 민간기업 활성화, 국영기업 독점 해제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는 공산혁명 이후 최초로 민간 중소기업 설립을 허용하여 경제 활성화 추진 중이나 제한된 국제 금융시장 접근성 및 수출입의 국가독점 유지, 국내 소비지출 약화 등으로 민간경제 확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 5. 주요산업

### 가. 개요

쿠바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반면, 제조업은 19.1%(세계 평균 28%)로 상당히 취약한 편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물자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인 제조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제조업생산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2022년에는 3.7% 성장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수준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고용측면에서는 1차 산업이 17.4%, 제조업이 17.1%, 서비스업이 65.5%를 차지해 역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나. 주요 산업별 현황

쿠바 관광산업은 전문 서비스업(주로 의료진 해외파견), 해외거주 가족들의 이전 소득과 함께 쿠바경제의 주요 외화 취득원이다. 2015년 미국과의 수교 이후 크루즈 관광 등이 급증하며, 2016 및 2017년에는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 2기 임기 당시 쿠바와의 관계개선으로 미국 관광객이 연간 60만 명 수준까지 상승, 쿠바 내 15개 공항으로 항공편이 연결될 정도로 호황을 누렸으며 쿠바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관광산업이 책임질 정도로 비중이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트럼프 정부의 제재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을 책임지던 미국시장이 사실상 닫히게 되었다. 이러한 하락세는 2020년 초에 팬데믹으로 정점에 달한 바 있다.

쿠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151% 증가한 240만명을 기록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총 약 93만명이 방문하여 1위를 기록하였고 러시아는 전년대비 340% 증가한 18만 4000명이 방문하여 가장 많이 성장한 국가로 기록되었다. 미국관광객은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뒤로 스페인, 독일, 멕시코가 주요 관광객 출신국가로 기록되었다. 전체 관광객 수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비해 아직 42.8% 낮은 수준이지만 2021년 미국의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들어 중국의 Air China는 아바나-베이징 노선을 5월부터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콜롬비아의 Avianca도 아바나-보고타 직항노선을 재개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도입되고 있다.

쿠바 관광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북미와 유럽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키지로, 2023년 시장 규모는 1억 2360만 달러 수준에 달하며, 2027년까지는 총 매출의 76%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쿠바 관광시장의 트렌드로는 4-5성급 대형호텔의 증가로, 이는 관광산업의 부흥이 경제위기 탈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쿠바정부의 핵심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3년간 호텔·숙박시설의 수는 크게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수 및 가용침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단위 숙소당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쿠바 최대의 이슈는 전력부족으로, 최대전력사용량 대비 25~35%가 부족해 산업, 가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쿠바 1인당 총 에너지 공급량(Total Energy Supply per Capita)은 30년 전 대비 48.5% 감소한 상황(한국, 149.6% 상승)으로, 낮은 인프라 투자로 대다수의 발전설비가 노후화, 또는 사용연수를 훨씬 초과했고(현재 운영 중인 쿠바 화력발전소 평균 사용연수 36년, 한국 설계연수 30년), 외화부족 및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지보수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전용량은 전체 설비용량(6,558MW)의 38% 수준인 2,500MW에 그치고 있다. 쿠바 정부는 현재 95%에 이르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정부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로 동 분야 투자는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우방국의 투자로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또한 쿠바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산업으로, 당면한 전력부족 사태 해결은 쿠바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향후 경제회복을 위해 발전 및 송배전 분야를 포함, 산업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전망이다.

쿠바의 폭증하는 인터넷 수요에도 불구하고 ICT 경쟁력은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 내, 또는 동일 소득군 국가간 비교시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경제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팬데믹 발생 이후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4배가 상승하였으나 2022년 9월 기준 49.27%만이 4G망에 접근이 가능하다. 가구 내 와이파이 인터넷은 총 383만 가구 중 26.48만 가구로, 6.9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8년 8월 모바일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쿠바는 필요한 식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생산량 증대가 국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농기계, 비료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1990년대 舊소련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 농기계, 비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비자발적인 유기농으로의 전환,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이탈이 겹치게 된 점이 농업생산성이 정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II. 무역

### 1. 수출입

#### 가. 개요 및 동향

1958년부터 시작되어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는 쿠바의 대외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상적으로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될 수 없었던 관계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지게 되었고, 소수의 주요 상품 수출(담배, 니켈, 의약품)과 서비스 수출(관광 및 의료 서비스)을 제외하고는 외환 수입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 여건 변화에 취약한 상태이다. 미국의 제재가 유지되는 한 국제경제체제로의 통합 가능성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쿠바의 '23년 수입은 46억 달러(전년대비 53% 감소)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국내 수요에도 불구하고, 외환부족으로 충분한 수입을 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23년 수출 또한 전년대비 24.7% 감소한 1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력부족 등으로 국가 생산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였다. 무역수지는 29억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국가의 외환부족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 나. 국가별 수출입

##### - 국가별 수출입 현황

베네수엘라는 2010~2015년 쿠바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수출 수입과 수입 지출의 약 40%를 차지했지만 국제유가 하락, 정치 불안으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후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2023년에는 5%와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중국과 스페인 주요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 했고, 캐나다와의 교역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 수출 상위 10개국

#####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캐나다	460,093,000
2	중국	371,763,000
3	네덜란드	196,093,000
4	스페인	143,685,000
5	베네수엘라	123,751,000
6	포르투갈	37,608,000
7	독일	37,181,000
8	홍콩	34,694,000
9	프랑스	27,323,000
10	키프로스	24,415,000

<자료원 : UN Comtrade>

#####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캐나다	614,536,000
2	중국	417,708,000
3	스페인	165,101,000
4	베네수엘라	103,489,000
5	네덜란드	70,693,000
6	버뮤다	64,813,000
7	이란	60,575,000
8	니카라과	44,382,000
9	영국	42,741,000
10	독일	38,498,000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스페인	346,807,000
2	중국	175,499,000
3	독일	40,840,000
4	프랑스	28,705,000
5	베네수엘라	26,857,000
6	캐나다	23,856,000
7	홍콩	23,456,000
8	키프로스	17,540,000
9	벨기에	14,298,000
10	이탈리아	13,810,000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캐나다	585,114,000
2	중국	360,085,000
3	스페인	128,944,000

4	독일	57,379,000
5	스위스	48,262,000
6	홍콩	43,741,000
7	키프로스	42,514,000
8	네덜란드	36,660,000
9	마카오	29,245,000
10	벨기에	25,658,00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스페인	666,023,221
2	중국	478,119,239
3	이탈리아	209,493,432
4	브라질	198,786,244
5	캐나다	191,145,218
6	미국	172,059,133
7	독일	161,378,179
8	네덜란드	151,510,720
9	아르헨티나	137,122,807
10	파나마	130,801,53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베네수엘라	1,245,860,000
2	중국	972,057,000
3	스페인	841,881,000
4	러시아연방	627,961,000
5	아르헨티나	461,593,000
6	네덜란드	451,297,000

7	이탈리아	446,728,000
8	미국	371,005,000
9	멕시코	361,362,000
10	베트남	299,447,000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3,530,029,000
2	스페인	1,125,951,000
3	미국	995,926,000
4	아르헨티나	449,946,000
5	멕시코	344,934,000
6	브라질	341,941,000
7	독일	335,720,000
8	이탈리아	246,915
9	베트남	229,063,000
10	네덜란드	218,829,000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스페인	938,297,000
2	중국	502,348,000
3	미국	404,375,000
4	네덜란드	390,185,000
5	파나마	321,484,000
6	멕시코	296,431,000
7	캐나다	224,748,000
8	브라질	220,138,000
9	독일	187,877,000
10	이탈리아	176,903,000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맥주(1위, 3억 3975만 달러), 절단육과 설육(2위, 3억 2300만 달러), 경미(3위, 1억 7869만 달러), 밀(4위, 6875만 달러) 등 1위에서 10위까지 모두 식료품이 차지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시가(1위, 3억 4889만 달러), 니켈(2위, 1억 3925만 달러), 아연(3위, 1억 669만 달러), 럼주(4위, 9656만 달러), 은광과 정광(6위, 6134만 달러)와 같이 농식품과 광물 등 1차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501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615,391,000
2	2402100000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26,689,000
3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66,434,000
4	271019	기타	123,717,000
5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89,788,000
6	300490	기타	80,652,000
7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53,788,000
8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 · 파누리루스(Panulirus)속 · 자수스(Jasus)속]	44,160,000
9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1,395,000
10	780199	기타	32,361,000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501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87,717,000
2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210,592,000

3	240210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93,161,000
4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05,909,000
5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96,560,000
6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95,487,000
7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2,052,000
8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 · 파누리루스(Panulirus)속 · 자수스(Jasus)속]	67,803,000
9	780199	기타	42,772,000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0,695,000

<자료원 : UN Comtrade>

###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501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961,000,000
2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258,927,000
3	240210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18,694,000
4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102,668,000
5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80,647,000
6	780199	기타	51,480,000
7	03061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 · 파누리루스(Panulirus)속 · 자수스(Jasus)속]	50,825,000
8	440290	기타	31,490,000
9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5,209,000
10	040900	천연꿀	19,641,000

<자료원 : UN Comtrade>

###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40210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48,898,000

2	7501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139,256,000
3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106,690,000
4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96,564,000
5	440290	기타	61,934,000
6	261610	은광과 그 정광	61,348,000
7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 · 파누리루스(Panulirus)속 · 자수스(Jasus)속]	35,835,000
8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8,769,000
9	030192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15,373,000
10	0409000000	천연꿀	14,593,000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808,538,000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66,748,000
3	0207140000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96,520,000
4	100590	기타	171,210,000
5	100199	기타	164,611,000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58,292,000
7	100640	쇄미(broken rice)	157,787,000
8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35,907
9	040221000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114,124,000
10	150790	기타	104,063,000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152,032,000
2	271019	기타	1,095,439,000

3	0207140000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416,753,000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14,411,000
5	100199	기타	212,096,000
6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172,514,000
7	100590	기타	164,289,000
8	100640	쇄미(broken rice)	155,372,000
9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54,582,000
10	150790	기타	142,272,000

<자료원 : UN Comtrade>

###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20714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465,654,000
2	100199	기타	171,083,000
3	100640	쇄미(broken rice)	168,002,000
4	150790	기타	159,798,000
5	2503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155,185,000
6	2203000000	맥주	136,980,000
7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127,272,000
8	100590	기타	125,791,000
9	040221000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109,542,000
10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83,572,000

<자료원 : UN Comtrade>

###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20300	맥주	339,756,000
2	020714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323,005,000
3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178,690,000
4	100199	기타	68,751,000

5	150790	기타	68,282,000
6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60,336,000
7	271019	기타	43,811,000
8	160100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脣肉) )·피·곤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38,559,000
9	040690	그 밖의 치즈	34,656,000
10	020329	기타	34,288,000

<자료원 : UN Comtrade>

## 2. 한국과의 수출입

### 가. 개요 및 동향

한국-쿠바 교역은 미국의 對쿠바 제재로 대금결제에 어려운 상황으로, 대부분의 거래는 제3국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2018년에 무역보험공사에서 쿠바에 대한 수출보험 제공을 중단한 이후부터는 더욱 직수출은 어렵게 되었으며,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쿠바 내 외환부족으로 인해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교역도 상당부분 움츠러든 상황이다. 미국의 對쿠바 제재가 단시간 내에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한-쿠바 교역 역시 단기적으로는 현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의 對쿠바 수출에는 ① 미국 경제제재 및 쿠바 외환부족으로 인한 수출대금 송금문제, ② 수출보험 제공 불가로 인한 위험 가중, ③ 360일, 720일 외상 등 수용이 힘든 결제조건 요구 등 3가지 주요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수출대금 송금문제의 경우 미국의 제재로 달러 사용이 불가능해 유로화를 사용해야 하고 2018년 이후 한국 시중은행이 쿠바 수출입대금을 취급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금이 어렵다. 결제 조건의 경우, 현재 쿠바 현지 외환부족 및 L/C불가로 기본 360일, 또는 720일 외상거래 요구함에 따라 신용위험 및 1~2년치 금융비용이 수출기업에 전가되는 위험이 있다.

###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한국의 對쿠바 수출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對쿠바 제재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2017년 7078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로, 2023년 연말 기준 수출금액은 356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트럼프 정부들어 강화된 쿠바 제재 및 쿠바 내 경제상황 악화 및 외환부족에 따른 수입여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의 對쿠바 수입은 특이치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간 4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 수준으로, 대부분이 금속, 식품류가 주를 이룬다.

한국산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타이어 등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한국 제조기업이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마케팅이 없더라도 쿠바 현지의 에이전트가 멕시코, 파나마 등지에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정확한 품목 별 수출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0	21	10	11
2021	22	4	18
2022	14	7	7
2023	36	7	29
2024	17	6	1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2023년 주요 수출품목은 도금강판(전년 수출없음), 승용차(+4,891.2%), 아연도강판(전년 수출없음), 자동차부품(+21.9%) 등이나 수

출건수가 작아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2023년 연 수출통계를 보면 금액 기준 10대 품목 중 5개가 최근 2년간 수출이 전무하고, 최대수출액 1개 품목(도금강판)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부품, 발전기 등은 기존제품의 유지보수 수요가 꾸준해 매년 수출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對쿠바 수입은 특이치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간 4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 수준으로, 대부분이 금속, 식품류가 주를 이룬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6137	도금강판	19	0	18
2	7411	승용차	10	0	10
3	7901	기타기계류	0	0	0
4	7420	자동차부품	1	0	1
5	7412	화물자동차	0	0	0
6	8491	회전기기 부분품	0	0	0
7	7111	원동기	1	0	0
8	7532	플라스틱금형	0	0	0
9	1336	윤활유	0	0	0
10	8352	축전지	0	0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6137	도금강판	8	0	8
2	7411	승용차	4	0	4
3	7901	기타기계류	2	0	2
4	7420	자동차부품	0	0	0
5	7412	화물자동차	0	0	0
6	8491	회전기기 부분품	0	0	0
7	7111	원동기	0	0	0
8	7532	플라스틱금형	0	0	0
9	1336	윤활유	0	0	0
10	8352	축전지	0	0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6221	동괴및스크랩	0	4	-5
2	0154	연초류	0	1	-1
3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0	1	-2
4	2262	의약품	0	0	0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0	-1
6	0157	주류	0	0	-1
7	9210	그림	0	0	-1
8	4411	편직제의류	0	0	0
9	4490	기타섬유제품	0	0	0
10	8245	진공청소기	0	0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6221	동괴및스크랩	0	3	-3
2	0154	연초류	0	2	-2
3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0	1	-1
4	2262	의약품	0	0	0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0	0
6	0157	주류	0	0	0
7	9210	그림	0	0	0
8	4411	편직제의류	0	0	0
9	4490	기타섬유제품	0	0	0
10	8245	진공청소기	0	0	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3. 수출 유망품목

####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 농기계

HS CODE	8433	수입액 (US\$백만)	
수입관세율(%)	10	대한 수입액 (US\$백만)	0
선정사유	현재 사용되는 농기계 상당수는 구소련 제품으로, 장비 노후화로 인해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제고 위해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최신형 농기계 도입 시급		
시장동향	필요한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가 최우선 과제로 지정 그러나 비료, 농약, 농기계 모두 제재로 인해 수입이 원활치 않음		
경쟁동향	중국,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진출방안	농기계 수입을 전담하는 국영기업인 Gecomex 그룹 산하 Maquimport社를 통한 수요발굴 파나마, 멕시코, 이탈리아 등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우회수출 필요		

##### ○ 독립식 발전기 및 부품

HS CODE	8501	수입액 (US\$백만)	
수입관세율(%)	10	대한 수입액 (US\$백만)	0
선정사유	베네수엘라 원유공급 불안정으로 전력수급 불안정 한국산 브랜드(현대중공업) 인지도 높음		
시장동향	베네수엘라 원유공급 불안정으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장비 현대화 수요 발생 경제제재로 인해 부품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유지보수 어려움		
경쟁동향	독일, 중국		
진출방안	파나마, 멕시코, 이탈리아 등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우회수출 필요		

##### ○ 굴삭기

HS CODE	8429.52	수입액 (US\$백만)	
수입관세율(%)	10	대한 수입액 (US\$백만)	0
선정사유	광산업은 관광업과 함께 쿠바 최대의 외화획득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가 필요 제1수출품목 광물생산량 증가를 통한 외화획득 필요		
시장동향	캐나다, 스페인 기업들이 쿠바 국영기업과 합작투자자로 니켈채굴을 중심으로 운영 중		
경쟁동향	중국, 일본		
진출방안	파나마, 멕시코, 이탈리아 등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우회수출 필요 쿠바 기계·장비 수입을 담당하는 마킴포트(Maquimport)社를 통한 수입수요 발굴 및 벤더등록		

##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 호텔 등 관광시설 경영

선정사유	쿠바의 호텔은 국영이며, 국제적 수준의 노하우부족 및 자본 부족으로 해외전문경영기업과의 협업수요 증가
시장동향	단순 경영뿐 아니라 SW시스템, 가구, 소모품, 리모델링 등 자본투자까지 요구하는 추세
경쟁동향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계 다국적기업들이 진출우세, 최근 동남아 자본 진출 고급호텔은 Melia, Iberostar 등 스페인계가 점유
진출방안	해외계열 호텔의 Sub-Contract로 건설, SW 등 우선 진출

### ○ 교육 콘텐츠

선정사유	쿠바인들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따라 외국어 등 학습수요 증가
시장동향	쿠바의 교육은 공교육 중심이나, 소규모학원을 자영업으로 허용 중
경쟁동향	주로 자체 제작 콘텐츠 사용
진출방안	수요가 높은 영어 등 외국어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교육(자영업)시장 진입 우선 추진 필요.

### ○ 건설

선정사유	아바나 및 해변휴양지 호텔신축 계속, 노후 주택대체를 위한 신축 등 건설투자 지속
시장동향	호텔업 투자는 쿠바국영기업과의 합작회사만 가능 객실점유율은 50%이지만 쿠바정부는 2030년까지 호텔객실 대폭 확대정책 시행 중
경쟁동향	스페인, 프랑스, 중국, 베트남 등
진출방안	쿠바건설업 진출을 위해서는 기진출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가 안정적임

## 4. 무역협정

###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ALADI(Asociación Latinamericana de Integración)	ALADI 회원국	1999-01-01	1999-01-01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Caribbean Community(CARICOM)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uba	CARICOM 회원국	2002-12-08	2002-12-08	
Joint Action Plan of the EEC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uba for 2021-2025	Eurasian Economic Union	2021-12-15	2021-12-15	

<자료원 : [www.aladi.org](http://www.aladi.org), [www.caricom.org](http://www.caricom.org), [www.eurasiancommission.org](http://www.eurasiancommission.org), [www.mincex.gob.cu](http://www.mincex.gob.cu)>

### 나. 논의 중 협정

없음.

## 5. 수입규제 및 관세

###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 수입금지품목

쿠바는 마약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규제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수입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가장 큰 장애는 수출입 업무를 쿠바 정부산하 산업분야별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외환부족으로 인해 수입대금 송금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일반적으로 1~2년간의 외상거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수출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사태도 자주 발생해 왔는데,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 외환부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상적인 수입경로가 사실상 막힌 상황으로, 산업별로 상황이 다르기는 하나 1)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FOD -> CIF), 2) 일부 필수품목의 경우 아바나에서 직접 현찰수령 요구 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제재로 쿠바와 거래시 금융기관의 달러 사용 또는 미국계 은행을 경유한 송금(U-Turn거래)이 불가능해 유로화, 캐나다달러 등이 주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시중은행 중 쿠바와의 금융거래(L/C, T/T 등)를 취급하는 기관은 없다. 무역보험공사의 쿠바 대상 수출보험 제공은 18년 이후 중단되었다.

### 나.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쿠바 내에서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야별 주요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의약품 및 의료기기: CECMED (<https://www.cecmec.com>)
- 엘리베이터, 승강기: GNA (Grupo Nacional de Ascensores)
- 건축자재, 방수재: DN MICONS (<https://www.micons.gob.cu/es/tramites>)
- 측정기기: ONN ([www.ncnorma.cu](http://www.ncnorma.cu)) \* 한국에서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통신장비 및 부품: MINCOM([www.mincom.gob.cu](http://www.mincom.gob.cu))

#### 다. 관세제도

##### 관세제도 개요

쿠바는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국영기업이 수입을 직접 수행하는 관계로, 현지 바이어끼리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www.aduana.gob.cu](http://www.aduana.gob.cu)) 또는 통계청([www.onei.gob.cu](http://www.onei.gob.cu))에서는 개정된 최신 관세율표를 게재하고 있으며, 수입 품목별로 2 ~ 45% 수준이다.

쿠바관세법은 1973년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승인되고, 교토협정서라고 알려진 '관세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국제협정'에 언급된 관세규정을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쿠바 내에서는 수출입 국영기업과 일부 쿠바 정부와 합작한 외국기업만이 수입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2020년 8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며, 이의 일환으로 그간 민간부문에 금지돼 있던 수출입 권한을 간접적으로 부여하였다. 그간 정부가 독점하던 수출입 권한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수출입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쿠바 내 수출입 국영기업을 통해 거래처를 발굴하고 국영기업이 직접적인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바, 기존과 같이 최종 수출입 권한은 정부에 국한된다고 봐야 한다.

2022년 9월에는 도소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해당 기업들의 수출입 권한도 부여하였다. 다만 모든 기업이 도소매업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쿠바시장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수혜기업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쿠바 관세청 홈페이지 내 관세정보 접속 (<https://www.aduana.gob.cu/index.php/pagina-basica/arancel-comercial>)

관세율표는 관세청 기준, 홈페이지에 접속해 Procesos → Comerciales → Arancel Comercial 메뉴로 이동하면 다운로드 가능하다.

## 6. 통관 · 물류

### 가. 물류정보

#### 물류정보

#####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섬나라인 쿠바는 약 5,750km의 해안선을 따라 총 70개의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화물항은 31개다. 한국에서 출발한 쿠바행 화물은 주로 태평양을 건너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후 수도 아바나에서 약 50km 서쪽에 위치한 마리엘 항구를 통해 들어온다. 해당 항구 및 아바나 항구를 통해 전체 물동량의 60%가 소화된다. 이후 육로를 이용해 내륙지역으로 운송되나,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내륙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아바나항 및 마리엘항을 비롯하여 약 10개 내외의 국제규모 항구가 쿠바내 존재한다.

특히 2013년 9월 마리엘 자유무역지대 관련 법안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마리엘 항구는 파나마 운하 확장과 더불어 북·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을 아우르는 물류허브로 활용이 가능하다. 마리엘 특구는 자체 컨테이너항 이외에도 아바나-피나르 델 리오(Pinar del Rio, 쿠바의 서남부 도시) 고속도로, 아바나-마리엘을 연결하는 판아메리카 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으며, 철도교통 인프라, 항공 인프라(아바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도 보유하고 있어 쿠바 국내외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쿠바의 무역항은 다른 국가 교통 인프라와 동일하게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나, 약 7억 달러가 투입된 마리엘 무역항의 경우 신식 시설을 자랑하고 있으며, 산티아고 데 쿠바 무역항의 경우 현재 중국 및 베트남 자본을 통해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규모: 쿠바정부는 무역항별 물동량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마리엘 항구의 경우, 최대 88만 TEU까지 처리가 가능하며 광물 및 농작물 운송에 특화된 산티아고 데 쿠바 항구는 약 5만 TEU의 처리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쿠바의 항만 전체 물동량은 390만 TEU 규모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2024년 쿠바 통계청 기준)

#####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쿠바의 주요 국제공항으로는 아바나 국제공항(Jose Marti International Airport), 바라데로 국제공항(Juan Gualberto Gomez International Airport), 산타클라라 국제공항(Abel Santa Maria International Airport) 등이 있으며, 그 중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대부분은 아바나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바라데로 국제공항의 경우, 휴양도시인 바라데로에서 약 3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캐나다 및 유럽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미국의 대쿠바 제재, 고비용 등으로 인해 항공 화물 물동량은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2023년 항공운송은 3,400톤을 기록하였다. (2023년 쿠바 통계청 기준)

### 나.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우리나라에서 쿠바로 컨테이너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년 교역량이 4,252만 달러(2023년 기준) 수준으로 크지 않고 사회주의 특성상, 수입자가 쿠바 정부이기 때문에 통관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단지, 통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장비 고장, 늦은 행정처리 등 물리적인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 ○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

- 선하증권, 상업송장, 품질·순도(purity)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 ○ 수입/수출이 금지된 품목

- 약품, 폭발물, 포르노 물품·사진·책자 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물품, 쿠바의 보안 및 국내 질서에 반하는 모든 물품(책자 포함), 동물·식물 및 이들의 부분품(CITES 협정의 부록 1에 있는 품목)

##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 Grupo Palco

주소	Calle 146 No. 1104 e/ 11 y 17 D, Reparto Cubanacán, Playa, La Habana
전화번호	+53 7208 4329/28/27
이메일	transitaria@palco.cu
홈페이지	<a href="http://www.gpalco.com/">http://www.gpalco.com/</a>

### ○ Transcargo

주소	Fabrica # 54 6to piso e/ Aspúry Lina de Ferrocarril, Habana Vieja
전화번호	+53 7690-5409/5906
이메일	javier@transcargo.transnet.cu
홈페이지	<a href="https://transcargo.transnet.cu/">https://transcargo.transnet.cu/</a>
비고	해외 전용 URL

<자료원 : KOTRA 아바나 무역관>

# III. 투자

## 1. 투자환경

### 가.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쿠바 정부는 2014년 3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1995년의 외국인투자법(Law77)을 대체하는 신 외국인투자법을 발표했다. 또한, 2019년 2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 경제성장의 '보조적 수단'에서 '주요 전략'으로 인식, 기존 헌법에서 국가와 협동조합, 합작투자자산만 가능하였던 기업활동을 일반 외국기업에도 허용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기신고된 외국인직접투자 이행 지연에 대한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장려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 1) 관련 법령별 주요 내용(발효: 2014년 6월)

- 외국인투자법 Law 118/2014(의회 통과)
  - 투자 보장, 투자 가능 분야, 투자 형태, 승인 절차, 분쟁해결방법, 금융 문제, 고용, 조세 등의 투자 전반을 다룸.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Decree 325/2014(각료회의 발표사항)
  - 투자 프로젝트 관련 각종 진행절차 명문화, 외국인투자평가위원회 신설
-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uba) 시행규칙 Resolution 46, 47/2014
  - 외국인 투자자들의 쿠바 내 은행계좌 개설
  - 외국인 투자자의 쿠바 내 이익금 송금 허용
- 대외무역부(MINCEX) 시행규칙 Resolution 128, 129/2014
  - 외국인 투자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 기술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를 위한 방법론 수립
- 사회보장노동부(MTSS)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Resolution 16/2014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체제 규정: 임금 협상, 급여 세부 내용, 국영 인력 파견회사와의 관계

#### 2) 기존 외국인투자법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외국인 투자자 소유권 허용
  -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며 외국 거주 쿠바인의 투자도 허용
  - 과거, 규정상으로는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됐으며 실제로는 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아 사업 운영권 보장이 어려웠음.
  - 외국 거주 쿠바인의 투자 역시 실제로 거부되곤 했음.
- 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사업 내용에 따라 대사업과 소사업으로 구분
  - 소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45일 내 사업 승인
  - 기존에는 국가평의회 혹은 각료회의에서 승인했으며 60일 이상 소요

○ 조세감면 혜택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국제경제제휴계약의 외국인 투자자 파트너의 경우,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배당금 및 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감면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국제경제 제휴계약의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순수과세대상수익에 대한 소득세 15%(과거에는 35%)를 사업 초기 8년간 면제
- 투자를 위한 각종 기계·기기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면제

3) 신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

- 분쟁 발생 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쿠바 소재 중재재판소에서 해결
- 합작회사는 쿠바의 국영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
  - 임금은 파견회사에 쿠바페소(CUP)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환(USD/EUR 등)으로 지급하며 파견회사는 노동자에게 쿠바페소(CUP)로 임금 지급

4)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 외국인투자의 보장
  - 외국인 투자자는 공익 혹은 사회적 이해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법적 보호를 보장받으며, 국유화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법으로 보장
  - 투자 배당금 혹은 이익의 해외 송금 가능(별도의 세금 혹은 수수료 없음)
  -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기관의 승인 이후, 정부나 협력 단체 혹은 제3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팔거나 이전 가능
- 투자 가능 분야
  - 쿠바 정부는 보건·건강, 교육, 군사기관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며 쿠바 정부의 우선 투자 희망분야를 선정한 바 있음.
- 투자 방법
  - 직접투자: 직접투자를 제외한 주식 투자, 혹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5) 직접투자 사업형태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Joint Venture)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새로운 주식회사(기명주식)를 설립하는 형태. 회사 운영은 쿠바의 내국법 규정을 따름.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의 출자 자본금은 상호합의를 통해 정하며 투자승인서에 명기
  - 상업등기소에 등록해 법인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혹은 해외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외국자본회사(Totally Foreign Capital company)
  - 투자 전액이 외국인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설립한 경우
- 국제경제제휴계약(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Agreement = 파트너십 계약)
  -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특정 분야의 국제경제활동을 위해 맺는 계약으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음.
  - 활동 분야: 호텔, 생산 및 서비스 경영,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건설, 농업 생산
  - 외국인투자자: 외국 주소와 외국 자본을 가진 개인 혹은 법인

· 내국인투자자: 쿠바 주소를 가진 쿠바 국적의 법인

## 투자인센티브

신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 8년간 면제, 이후 15% 적용(단, 100% 외자기업은 별도 혜택 없으며 35% 법인세 부과)

한편, 마리엘특구투자기업의 경우는 법인세 감면율이 높는데, 10년간 면제되며 이후 12%가 적용된다. 또한 마리엘특구 법인세 감면혜택은 100% 외자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제한 및 금지(업종)

쿠바는 보건, 교육, 국방 및 치안 분야에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신투자법 11조).

또한 천연자원 개발, 공공서비스, 바이오산업, 유통업, 관광업 등에는 합작형태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만 50% 미만의 지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 나.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쿠바 정부는 본격적 외자 유치를 위해 2013년 9월 마리엘 경제특구 개발법을 채택한 데 이어, 2014년 3월 외국인투자 개정법 118조를 발표, 관련 외자유치 행정령인 대외무역부 행정령 128 및 129조, 중앙은행 행정령 46 및 47조, 고용사회안전부 행정령 16조 등 종합적인 외자유치 활성화 법제를 마련했다.

2014년 1월 마리엘 경제특구 단지가 가동을 시작, 대대적인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으나 고용 자유화 문제가 미해결 및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쿠바 내 기존 외국인 업체를 제외한 신규기업 진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2023년 5월 기준, 마리엘특구에는 21개국 소재의 기업으로부터 총 61개의 프로젝트(규모 30억 달러)가 승인되었다.

쿠바정부는 2019년 헌법개정 및 제8차 공산당 전당대회 등을 통해 쿠바 정부의 강력한 외자유치 도입 의지를 밝혔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글로벌 경제 편입 노력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꾀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화된 금융 제재, 낙후된 금융 시스템 및 영업이익 해외송금 제한, 외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입대금 지급 지연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마리엘 경제특구에 대한 베트남의 투자가 두드러지는데, ViMariel이라는 베트남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 Thi Bnh Corporation가 건설중인 세탁세제 공장을 포함, 총 5개 프로젝트에 대해 1억6000만 달러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산업단지

- 마리엘 발전특구(La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 ZEDM)

규모	465km <sup>2</sup>
위치	아바나에서 서쪽으로 45km 지점

<p><b>임차료</b></p>	<p>투자분야별 임차료는 상이하며 SM당 1년에 30~60달러 정도이다. 또한 사업연수에 따라 적용 금액도 상이하다.</p>
<p><b>관할기관 및 연락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리엘경제특구 사무소</li> <li>- 주소: Centro de Negocios Pelicano, 3er Piso, Zona A-5. Sector A, Mariel, Artemisa.</li> <li>- 전화: (53-47) 397360 al 63</li> <li>- 이메일: correo: ventanillaunica@zedmariel.co.cu</li> <li>- 웹사이트: <a href="http://www.zedmariel.com/">http://www.zedmariel.com/</a></li> </ul>

〈자료원 : <http://www.zedmariel.com/>〉

**주요 지역별 여건**

없음.

## 2. 외국인직접투자

### 가. 개요 및 동향

UNCTAD 및 쿠바통계청(ONEI)에서 FDI 관련 별도 통계발표 없음

###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UNCTAD 및 쿠바통계청(ONEI)에서 FDI 관련 별도 통계발표 없음

####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805	644	708	921	1197

<자료원 : EIU>

###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UNCTAD 및 쿠바통계청(ONEI)에서 FDI 관련 별도 통계발표 없음

####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	-	-	-	-

<자료원 : UNCTAD Stat>

### 3. 한국기업 투자

####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 한국기업투자 현황

최근 5년간 신규투자내용 없음

2005년, 2014년, 2015년 각 1건의 투자내역만 있음

데이터공표시기 최신화 (24년 4월)

#####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5	1	0	0	0	0
2014	1	0	300	0	0
2015	0	1	0	1	5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 업종별 투자 동향

최근 5년간 신규투자내용 없음

2005년, 2014년, 2015년 각 1건의 투자내역만 있음

데이터공표시기 최신화 (24년 4월)

#####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 200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1	0	30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0	1	0	1	5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파악된 진출기업 없음.

## 4. 투자진출방식

### 가. 투자진출 형태

#### 법인

##### ○ 합작법인 설립 요건 및 심사 기준

법적으로는 외국인 단독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고 합작법인이 대부분이다. 쿠바 측과 합작법인 설립도 케이스별로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이 다르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설립허가를 미루기도 하며 급한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하기도 한다.

##### ○ 신청서 제출 기관: 쿠바 대외무역투자부(MINCEX), 쿠바무역투자진흥공사(Procuba)

- 주소: Calle 22 No.318 e/3ra y 5ta, Miramar, Ciudad de La Habana, Cuba
- 전화: (53-7)830-0495
- 이메일: idlaberto.aparicio@procuba.cu
- 홈페이지: www.procuba.cu
- 담당자: Mr. Idalberto Aparicio

#### 지사

쿠바에서는 지사와 연락사무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Sucursal이라는 형태의 사무소 형태가 있다. 이는 연락사무소의 개념에 가깝다.

#### 연락사무소

##### ○ 설립 요건

- 본사 등록지 국가에서 최소 5년간 영업한 회사
- 자본금 최소 5만 달러
- 쿠바와 최소 3년간 거래 경력이 있고 최근 3년간 쿠바와의 거래액이 매년 50만 달러 이상(쿠바 정부 필요에 의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음)
- 설립 승인 후 3년 유효하며 이후 갱신 신청

##### ○ 설립 신청 시 제출서류

(\*우리나라에 쿠바 대사관이 없는 관계로 주멕시코쿠바대사관을 통해서 공증)

- 연락사무소 개설 신청 서한
- 회사 정관 사본(쿠바 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쿠바 공증사무소 공증)
- 연락사무소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쿠바 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쿠바 공증사무소 공증)
- 쿠바와 거래했던 제품 목록(HS CODE 기준) 및 설명
- 소재국 거래 은행의 신용조회서(설립 신청 전 3개월 이내. 쿠바 은행이 소재국 거래 은행에 직접 신용 조회를 요청)
-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 최근 5년간의 운영 현황 보고서
- 최근 3년간 거래한 쿠바 회사 리스트, 회사별 거래 품목 및 거래 규모(쿠바 회사들로부터 확인 레터를 받아야 함)
- 최근 재무제표(외부 기관 감사 확인을 받아야 함)
- 소재국 회사등록 증명서(개설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 신청서 제출 기관: 쿠바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la Republica de Cuba)

- 주소: Calle 21, esq. a calle A, No. 661, Vedado, Ciudad de La Habana, Cuba
- 전화: (53-7)830-2643
- 이메일: juridico@camara.com.cu
- 홈페이지: www.camara.com.cu

##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b>투자진출시 유의사항</b>	<p>1) 투자위험도          쿠바의 만성적인 외화부족 상황이 대규모 자연재해, 미 제재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산업 급락 등의 이유로 2018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투자 위험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2009년 쿠바정부는 극심한 외화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바 내 외국인 계좌 전체를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여 수많은 외국기업의 피해로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외국기업의 이익송금이 현실적으로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등, 자국내 외화부족 상황으로 인한 외화 출금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쿠바법에 의거하여 모든 합작회사의 독자적인 경영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투자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합작회사 대부분에 대해 쿠바정부가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있다. 합작법인 등 외국인 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국유화 대상이 아니나, 쿠바 헌법이 규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국유화 결정시 쿠바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보상하도록 되어있다.</p> <p>2)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쿠바는 고용 관련 제도가 매우 까다롭다. 쿠바는 공산주의 통제사회로 모든 고용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특히 외국인은 쿠바인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합작회사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관할하는 쿠바 정부부처의 인력 관리기관만이 고용인력을 선정, 채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인력 관리기관은 투자기업에 해당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고용이 이뤄진다. 단, 적합인력의 부재,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실제 고용 가능한 직원 채용시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임금지불도 합작회사가 외환으로 인력관리기관에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관리기관은 종업원들에게 쿠바 페소(CUP)로 임금을 지불하는데, 합작회사가 실제 지불하는 높은 임금(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쿠바 인력관리기관이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통상적으로 월 USD 40내외 수준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합작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인센티브(gratificacin)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비공식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수준이 인근 중남미국가에 비해 결코 낮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p> <p>3) 분쟁해결          분쟁 발생 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쿠바 소재 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	--

## 다. 회사 유형

### 주식회사

기존 쿠바의 기업은 모두 국영기업이며,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Socieda Anonima)의 형태로 되어 있다.

다만 쿠바정부는 2021년 8월, 기존의 자영업 허용에서 진일보한 중소기업의 설립, 운영 및 규제에 대한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기존의 자영업 가능업종의 폐지와 함께 현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하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표방, 이의 일환으로 그간 민간부문에 금지돼 있던 수출입 권한을 부여하였다. 단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직접적 수출입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정부 수출입 공기업을 통한 간접적 수출입만 가능하다.

현지어로 미피메스(MIPYMES)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은 국영, 민간 또는 합작 형태를 띌 수 있으며, 기존의 개인사업자 상당수를 대체하고 있다. 법 발효 이후 약 2년 8개월이 경과된 2024년 3월 기준, 쿠바내 중소기업 규모는 총 11,000개, 고용규모 약 22만 명 정도로 집계된다.

## 개인사업자

쿠바내 자영업자의 수는 2019년 말 기준 60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중소기업법 제정 이후 상당수 중소기업으로 그 영업형태를 변경하여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 Bufete de Servicios Especializados - BES

전화번호	537 832-6024 / 835-3160
주소	Calle 23 No. 501 esquina a J. Vedado, La Habana, Cuba
이메일	besnet@enet.cu
비고	해외 전용 URL

### ◦ Consultoria Juridica Internacional S.A

전화번호	537 2042490
주소	Calle 16 No 314, entre 3era y 5ta ave. Miramar, Playa, La Habana. Cuba
홈페이지	<a href="https://www.consultoriacji.com/">https://www.consultoriacji.com/</a>
이메일	pavon@cji.cu

### ◦ Consultores y Abogados Internacionales CONABI

전화번호	537 214-4950/51/52/53/54
주소	Calle 36 A No. 313 entre 3a y Final, Miramar, municipio Playa. La Habana, Cuba
홈페이지	<a href="http://www.conabi.cu/">http://www.conabi.cu/</a>
이메일	conabi@conabi.cu

<자료원 : KOTRA 아바나 무역관>

## 5. 외환

### 가. 외환제도

#### 외환 제도 개요

쿠바는 내국인-외국인간 시장분리로 가격체계를 왜곡해왔던 CUP(내국인용 화폐) - CUC(외국인 전용화폐)의 이중화폐제도를 2021년부터 폐지하였다. 외화판매만 가능하고 구매를 불허하여 만성적인 외화수급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쿠바정부가 인정하는 공식환율은 24.0이나, 암환전시장이 비대하게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암환전시장을 뿌리뽑기 위해 2022년 8월, 개인에 국한해 달러당 환율 120에 구매하는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달러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달러가치는 여전히 공식환율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370). 2021년 1월 기준 이중화폐제도를 폐지한 이후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인 변동환율제 하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시 발생하는 환율조정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 외환 규제

쿠바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서 항상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외화에 대한 규제가 많다. 일반인들의 경우 외국으로의 송금이 규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시에도 1인당 5,000달러 이상을 가지고 출국할 수 없다. 입국시에도 5,000달러 이상을 보유시 신고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달러화 인출은 불가하며, 사실상 은행에서도 달러화를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라 해외여행 항공권을 제출시 본인 태환계좌(USD, EUR, MLC)계좌의 잔액을 유로화나 달러로 제한적으로 출금할 수는 있다.

쿠바로의 친인척 송금 수단이 되고 있는 Western Union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쿠바로의 송금은 허용되었으나, 여전히 쿠바에서 외부로 송금은 금지되고 있다. 수십억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친인척 송금 및 관광산업 그리고 의사 등 전문인력 파견 등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일부 허가받은 국영기업들로서 금액에 따라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고 시행하고 있다.

## 6. 노무

###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USD 1 = CUP 120 (쿠바내 기업간 거래환율은 USD 1 = CUP 24)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0.11
비고	<p>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로 무상복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연구소인 EIU에 따르면 쿠바의 2023년 1인당 구매력 기준 GDP(PPP)는 USD 15530 수준이나, 쿠바 노동자(정부부문 근로자)가 매달 받는 월평균 급여는 대략 CUP 4,085이다 (USD 170). 이는 정부의 국내기업간 거래 공식환율(USD1=CUP24)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실제 민간부문에서 거래되는 환율(370)을 적용시 월평균 급여는 약 USD 11 수준이다.</p> <p>외국인기업의 경우는 쿠바인을 직접 고용할 수 없고 쿠바 인력관리기관을 통해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고용계약에 따라 외국인기업은 인력관리기관에 직원별 500~900달러의 인력공급서비스료를 인력관리기관에 지급해야 하며, 해당 직원에게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p>				

<자료원 : 쿠바 통계청>

### 나. 노무관리

#### 고용계약

쿠바는 정부주도 계획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모든 고용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특히 외국인은 쿠바인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합작법인, 국제경제 협력계약 등 법인 성격의 영업 시에는 모든 노무관리를 쿠바 측이 전담한다. 아래 사항은 연락사무소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이다.

#### ○ 고용

- 쿠바 무역부 산하 인력운영기관인 ACOREC이 외국 연락사무소에 대한 인력 파견 총괄
- 외국인은 ACOREC에 필요한 인력 내용을 서한으로 신청하며, ACOREC은 후보자를 신청 회사에 추천
- 외국인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적격자를 채용 결정하며(또는 희망하는 인력을 선정하여 ACOREC에 채용 의뢰할 수도 있음), ACOREC과 인력 파견 계약서를 작성
- 고용 예정 쿠바인은 ACOREC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
- 업종이 무역 및 투자 등의 경우 ACOREC을 통해서 직원을 지원받고 관광/호텔의 경우 Cubanacan 혹은 Gaviota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는 등 분야에 따라 담당기관이 정해져 있음.
- 사무실에 외국인 근로자수가 현지인 근로자수보다 많을 수가 없으며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등록된 직원 수만큼의 차량만을 유지할 수 있음.
- 인력파견회사에 신청해 실제로 인력을 파견받을 때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으며(평균 6개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

#### ○ 임금 지불 방법

- 쿠바인 직원에 대한 임금은 ACOREC과 최초 작성한 인력파견 계약서에 기재되며, 매월 외화(USD)로 ACOREC에 직접 지불한다. ACOREC은 쿠바인 직원에게 쿠바페소로 임금을 지불하는데, 환산 시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USD 100 수준이다. 이에, 통상적으로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에게 Gratification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비공식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 ACOREC에 지불하는 페소급여는 환율 24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비공식급여는 USD로 직접 지불하게 된다.

## 근로시간

- ACOREC과의 인력파견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 1일 8시간, 주 44시간, 월 190.6시간

## 휴가

-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1년에 30일
- 휴가기간은 무급

## 해고

외국기업은 직원과 직접계약관계가 아니고 인력파견기관과 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해고라기 보다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력파견기관에 퇴직보상금을 지급한다.

## 퇴직금

외국인(기업)이 체결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근로자파견기관(ACOREC)에 지급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퇴직보상금은 ACOREC 공식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월급을 24일로 나눈 일당을 기준으로 한다. 쿠바 직원에게는 공식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퇴직금 계산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년 미만 근무 시: 24일분
- 1~5년 근무 시: 65일분
- 5~10년 근무 시: 89일분
- 10년 이상 근무 시: 161일분

## 다. 사회보장제

### 건강보험

의료보험,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쿠바 정부에서 총괄하며, 외국기업이 인력파견기관(ACOREC 등)에 지급하는 외화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 고용보험

의료보험,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쿠바 정부에서 총괄하며, 외국기업이 인력파견기관(ACOREC 등)에 지급하는 외화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쿠바 정부에서 총괄하며, 외국기업이 인력파견기관(ACOREC 등)에 지급하는 외화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쿠바 정부에서 총괄하며, 외국기업이 인력파견기관(ACOREC 등)에 지급하는 외화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 7. 세무

### 가. 조세제도

#### 법인세

- 100% 외국인 지분기업에는 35%, 합작회사 및 국제경제협력계약 회사에는 연간 순익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해외계약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4%의 세율이 부과된다.
- 쿠바의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 개인운영식당(Paladar) 및 숙박업의 경우 매출/임차료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50%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 개인소득세

- 쿠바 종업원에게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개인소득세 부과 제도가 없다.

#### 부가가치세

- 쿠바 정부가 직접 주체가 돼 무역에서부터 유통 그리고 관광사업 등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다.

#### 특별소비세

- 쿠바 국내에서 최종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Sales Tax (Impuesto sobre la venta) 가 도매에 2%, 소매시 10% 부과된다.
- 쿠바에서 발생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10%의 Service Tax (Impuesto sobre los servicios) 가 부과된다.
- 주류, 시가, 담배류에 대해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Impuesto especial a productos y servicios)는 법률로 정해진 세율이 없이 연도 별 예산안에서 결정된다.

## 8.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쿠바는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정회원 국가로, 1975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쿠바 국내에서 저작권(Copyright)은 문화부(Ministerio de Cultura) 산하의 국가저작권센터(CENDA - Centro Nacional de Derecho de Autor)가, 산업지재권은 과학기술환경부(Ministerio de Ciencia, Tecnologia y Medio Ambiente) 산하의 쿠바산업소유권실(OCPI - Oficina Cubana de la Propiedad Industrial)이 담당하고 있다.

- CENDA 홈페이지: [www.ministeriodecultura.gob.cu/es/ministerio-2/directorio-de-entidades/instituciones-con-funciones-globales/centro-nacional-de-derecho-de-autor-cenda](http://www.ministeriodecultura.gob.cu/es/ministerio-2/directorio-de-entidades/instituciones-con-funciones-globales/centro-nacional-de-derecho-de-autor-cenda)

- OCPI 홈페이지: [www.ocpi.cu](http://www.ocpi.cu)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Ley 154/2022 De los Derechos del Autor y del Artista Intérprete
- Ley 142/2021 Del Proceso Administrativo
- Decreto N° 341/2018 Decreto de la Oficina Cubana de la Propiedad Industrial
- Decreto N° 343/2018. Del sistema de propiedad industrial
- Decreto-Ley N° 336 Disposiciones contractuales de propiedad industrial en los negocios jurídicos
- Decreto-Ley N° 290, de las Invenciones y Dibujos y Modelos Industriales
- Decreto-Ley N° 291, de Protección de las Variedades Vegetales
- Decreto-Ley N° 292, de los Esquemas de Trazado de Circuitos Integrados
- Decreto-Ley N° 228, de las Indicaciones Geográficas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새롭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용신안은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12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시행한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제품 또는 공업 생산제품의 형태, 모양, 외관(2차원적인 것), 혹은 3차원 적인 대상이 신규성과 독창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쿠바의 상표 관련 법령은 문자, 이미지, 기호, 소리, 향기, 글자, 숫자, 색채 및 색채의 조합과 3차원적인 상품까지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한히 갱신 가능하다.

한편,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창작하는 순간 자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한다.

쿠바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쿠바는 디자인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

- Patent Law Treaty (2000.6.2)
- Trademark Law Treaty (1994.10.28)
- Lisbon Agreement (1958.10.31)
- Berne Convention (1997.2.20)
- Madrid Protocol (1995.12.26)

## 9. 청산 및 철수

### 가. 청산 및 철수

#### 관련 법 및 절차

대외무역부 결의안(Resolucion 501/2001)은 연락사무소(Sucursal) 면허 취소/정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아래의 경우 연락사무소 면허 취소 원인이 됨.

- a. 기업이 자발적으로 면허취소를 요청한 경우
- b. 면허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c.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d.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하여 영업정지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2) 상기 원인 중 a,b,c의 경우 면허담당기관이 직접 처리하며, d의 경우에는 부처 차원의 결의안 필요하다.

## IV. 참고정보

### 1. 시장특성

#### 가. 시장특성

쿠바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한 최신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나 외부기관 추산에 따르면 65.9%에 이를 정도로 정부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33.9%, 미국의 30%에 비교시 거의 2배에 이를 만큼 쿠바 경제에서 쿠바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전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공산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산업에서 국영기업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로 인한 비효율이 부각되면서 일부 산업에 대해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해주는 있으나 국영기업의 독점체제는 여전히 강고하다.

제조업은 구 소련시절부터 대부분의 공산품을 구 소련 및 동구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며, 구 소련 체제 붕괴 이후 공산품 제조를 위한 설비 투자도 미흡하다. 제조업 취약 및 설비, 기계 노후화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GDP대비 제조업 비중이 19%로, 세계 평균 28%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제조업생산 역시 2019년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입은 국영기업만이 담당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수출입 기능만은 국영기업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입에 필요한 외환역시 국영기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기업이 쿠바와의 수출입시 반드시 국영기업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의 경제 시스템 독점운영으로 제품별로 단일 국영브랜드, 또는 2, 3개 국영브랜드로 시장이 형성되므로 광고시장이 거의 없고,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당히 낮다.

2021년 1월부터 기존 쿠바페소(CUP)와 태환페소(CUC)로 운영하던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CUP 단일화폐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외 체류가족이 송금하는 USD와 1:1로 운영되는 자유태환화폐(MLC, Moneda Libremente Convertible)를 도입, 사실상 CUP와 MLC의 이중화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가족송금을 받고자 하는 쿠바 국민은 국영은행에서 MLC 계좌를 개설해야하며, MLC로 받은 돈은 달러로 인출할 수 없고 직불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MLC는 주로 국가가 운영하는 MLC 상점(식품, 가전제품 판매)과 관광호텔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쿠바 페소화 상품을 MLC로 결제할때는, 달러 공식환율과 같이 1 MLC = 120 CUP로 환율이 적용된다.

#### 나. 소비자 특성

##### 소비인구

쿠바의 총인구는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11,113,215명이다. (2023년 기준 최신자료)

- 남녀 성비는 49.6:50.4 이다.
- 연령별로는 14세 이하가 15.7%, 15~59세가 62.7%, 60세 이상이 21.6%로 나타났다.
- 수도 아바나 거주인구는 2.1백만 명(18.9%)이며 산티아고주 1.05백만 명, 올긴주 1.03백만 명이다. 지방별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달한 중서부에 다소 밀집한 모양이다.

쿠바의 인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1,1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인구규모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쿠바를 탈출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다소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10월 이후 1년 동안 총 인구의 2%에 이르는 224,607명이 과테말라, 멕시코 등을 통해 육로, 또는 바다를 통해 미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959년 혁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10월 기준으로 연간 통계 발표) 2022년~2023년 2년동안 42만 5,000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특히 최근의 탈출은 젊은층, 지식인층, 기술직 위주로 향후 장기적인 쿠바경제성장 동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쿠바 소비자는 크게 ① 외화소득이 거의 없이 정부급여(월 90달러 내외)로만 생활하는 그룹, ② 정부급여 이외에 해외송금 등을 통해 외화소득이 있는 그룹, ③ 정부급여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그룹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쿠바 내에서 외화로의 접근이 가능한 직업을 보유했나 여부에 따라 생활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는 외화를 벌 수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또는 미국에 소재한 가족/친척이 송금해주는 이전소득일 수도 있다.

- ①번 그룹은 사실상 정부의 배급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 실질적인 소비력은 거의 없다.

- ②번 그룹은 연평균소득이 600~700달러 수준으로, 생필품 확보에도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아바나 인구의 30%)

- ③번 그룹은 연평균소득이 1,800~2,000달러 수준으로, 주로 자영업자, 관광분야 종사자 등이다(아바나 인구의 20%).

<자료원 : 쿠바통계청>

## 소비 성향

쿠바는 1959년 이래 60년 넘게 유지된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1898년 독립부터 1959년 혁명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쿠바 경제, 사회를 지배했던 뿌리 깊은 미국의 영향으로 소비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소비 지향적 사회이다. 혁명 당시 부유층은 대거 망명했고,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한 탈출 등으로 현재 약 200만 명의 쿠바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쿠바인들에게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송금하고, 방문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어 미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2019년 10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쿠바 제재 강화로 인해 분기당 1인 송금 한도를 월 USD 1천으로 제한하고 최대 3개월까지 연속 송금을 허용함에 따라,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해외송금 규모는 대폭 축소되어 소비력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 쿠바제재 완화정책으로 위의 송금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한편,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기부형태의 송금이 가능하도록 열어줌에 따라 소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20년 7월, 쿠바정부는 외국환(USD, EUR)과 자유태환화폐(MLC)로만 거래가 가능한 외국환 상점을 전국에 개장하며 실질적인 달러 통용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쿠바 내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정착되었다.

2023년 현재, 극심한 물자부족 및 외화부족에 따라 대부분의 생필품 공급이 외국환 상점과 민간중소기업(MIPYMES)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달러화 경제권과 폐소화 경제권으로 양분화되며 달러 소득이 전무한 대다수의 국민은 원활한 생필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상점 내에도 주요 생필품 부족 현상은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쿠바 내 물자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쿠바에 사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USD로 책정된 주택임차료, 차량임차료 등을 지불하고 있으며, 각각의 담당기관의 재무 상황에 따라 현지화 또는 외화로 지급을 해야한다. 특히 지출규모가 큰 사무실 임차료, 주택 임차료, 차량 임차료, 직원 채용 등의 비용은 모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가격 책정 정책에 따라 이뤄짐에 따라 체감물가는 비싼 편이다.

##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의 주요 글로벌 브랜드는 쿠바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가전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공항을 비롯해 주요 공공장소에 광고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 최초로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도 쿠바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가 쿠바 정부시장, 렌터카 시장을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디젤 발전기는 쿠바 전력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쿠바는 국가의 경제 시스템 독점운영으로 광고시장이 거의 없고,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상업적 목적의 광고는 쿠바 정부의 수용 폭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 및 스포츠 후원, CSR 활동 등 대의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방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 2. 비즈니스 에티켓

### 가. 상거래 유의사항

#### 상거래 시 유의사항

- 평판 관리
  - 쿠바는 내부 정보 교류가 매우 활발하고 한 공기업과의 업무 내용이 전 공기업에게 공지되기 때문에 특정 쿠바기업에게 실수를 하거나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내용 급속히 쿠바 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관료주의, 인맥 형성
  - 쿠바의 바이어는 월 100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으로 관료주의가 심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은 편으로,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현지 인맥관리가 필수이다.
- 국영기업의 독과점 수입
  - 쿠바는 정부가 지정한 국영공기업이 독과점 형태로 수입, 정부 부처별로 공기업들이 분야별 수입을 관장하기 때문에 중개상을 통하더라도 실질적인 바이어는 쿠바 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 지속적 관계유지
  - 쿠바기업과 거래관계가 구축되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쿠바 거래처의 핵심인사를 방한 초청하여 기술 교육,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시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 대금지급 시기 지연 빈번
  - 수입대금 지불에서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며, 외화 부족으로 지연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금지연 사례 발생 시, 국내 무역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2018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으로부터 수입한 대금을 2023년 5월까지 미지급하고 있다. 쿠바정부는 외환 보유상황이 개선될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주요국들과 채무 리스케줄링을 협의 중이다.
- 선불거래 요구
  - 쿠바의 만성적인 외환부족 문제로 외국기업이 쿠바산 제품을 수입시 기본적으로 100% 선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기존에는 120일~720일까지의 외상수입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최소 360일, 보통 720일의 외상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 통신환경 취약
  - 현지 인터넷 사정이 취약하고 이메일 수신용량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메일로 메일 발송시 메일 본문에 최대한의 내용을 기재하고, 파일 첨부는 지양하거나 최소 용량(1메가 이하)으로 하는 것이 좋다.

### 나. 상담 유의사항

####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 쿠바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내국인 및 외국인의 활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팅에서는 쿠바 사회 및 체제에 대한 비판 또는 비교를 삼가야 하며 특히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국제전화 및 이메일 교신 시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 비즈니스 복장은 더운 날씨 때문에 양복을 입는 경우는 드물며 현지인들은 간단한 복장을 선호한다. 정부 공식행사 등에서는 우리나라

라의 모시옷과 유사한 guayabera 상의를 정장 대신 착용한다.

○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는 날씨, 방문 소감, 자연환경 등의 담소를 나누면서 Ice breaking을 하는 것이 좋으며, 구면일 경우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 Supermarket 23

사이트 주소	www.supermarket23.com
주요 판매 품목	육류, 햄, 생선, 유제품, 커피, 파스타, 위생용품 등
특징	해외 및 쿠바 내 결제 가능

##### ◦ Envio Cuba

사이트 주소	www.enviocuba.ca
주요 판매 품목	육류, 햄, 생선, 유제품, 커피, 파스타, 음료 등
특징	해외에서 결제 가능, 쿠바 국영 유통기업(La Puntilla, Carlos III 등)이 해당 플랫폼에 입주하여 자사 유통제품을 판매

##### ◦ Cuba Market

사이트 주소	www.cubamarket.net
주요 판매 품목	육류, 가공식품류, 유제품 등
특징	해외에서 결제 가능

##### ◦ Mall Habana

사이트 주소	www.mallhabana.com
주요 판매 품목	육류, 가공식품류, 배달음식, 소형 가전제품 등
특징	해외에서 결제 가능

##### ◦ Pucara

사이트 주소	www.tienda.pucara.net
주요 판매 품목	육류, 가공식품류, 음료 등
특징	해외 및 쿠바 내 결제 가능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 가. 성공사례

#### 1) 한국 기업 최초로 쿠바 과학기술 훈장 받은 R사

R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1997년부터 쿠바 국립과학연구소(CNIC)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한 폴리코사놀-사탕수수 왁스알코올(콜레스테롤 조절) 원료에 대해 호주,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독점권을 획득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제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R사는 자체 연구원을 개설하고 R&D를 지속하여 쿠바 원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제품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R사는 특히 CRS 활동도 지속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백신 대량생산에 필요한 카세트, 백신용 주사기, 마스크 등을 쿠바 국영기업에 지원하여 쿠바 정부의 신뢰를 얻고 코로나 감염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R사는 쿠바 CNIC(쿠바국립과학연구소)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했으며, 2024년 4월에 R사 대표는 한국기업인으로는 최초로 과학기술 훈장(카를로스 핀레이) 훈장을 수훈하였다. 수훈식에서 호르헤 루이스 페르도모 레야(Jorge Luis Perdomo Di-Lella) 쿠바 부총리는 쿠바와 한국은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 나. 실패사례

현재 쿠바와의 정상거래 불가능.

## 5. 출입국 안내

### 가. 비자

#### 종류 및 발급절차

아바나 공항 입국 심사 시 여권과 관광비자(Tourist Card)를 제시해야 한다. Tourist Card는 국내 여행사 또는 아바나 입국 직전 공항에서 구입 가능하며, 1인당 US\$ 25~100 수준이다 (구입국가에 따라 상이). 캐나다에서 Air Canada로 입국 시 항공권 가격에 비자가 포함되어 있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입국하면 된다. 입국 시 날인된 관광비자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공항입국심사 시 쿠바 입국을 위한 사전질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QR코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별도의 수화물 검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질의서는 쿠바 도착 48시간 이전부터 쿠바정부 사이트 (<https://dviajeros.mitrans.gob.cu/>)에서 작성 가능하며, 1인당 1건씩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쿠바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쿠바방문 기록이 있을 시, 미국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식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 ESTA 홈페이지 FAQ

(질문) How does Cuba'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mpact my travel to the United States using my approved ESTA?

(답변) If a traveler is found to have visited a country designated as State Sponsor of Terrorism, the traveler is no longer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Visa Waiver Program and must apply for a visa to enter the United States.

예전에는 ESTA 취소를 피하기 위해 쿠바 방문 시 미국을 거치는 것보다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을 거쳐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겼으나, 최근에는 미국 경유 유무와 무관하게 ESTA가 취소되고 있어 일단 미국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쿠바 방문 전, 혹은 후에 반드시 미국 비자를 획득하여야 한다.

쿠바 기업 및 기관 방문 시에는 관광비자 대신 상용비자(D7)를 발급하여 입국해야 한다. 발급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되며 초청기관에 따라 US\$ 10~85의 비용이 소요된다. 발급은 쿠바 측 파트너 기업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2022년 5월, 코로나19 관련 입국 시 방역절차를 모두 폐지하였으며, 이에 기존의 PCR 음성결과지 및 백신 접종증명서 등의 지참이 불필요하다.

### 나. 휴대품 통관

#### 휴대품 면세

수하물 수취대에서 부친 짐을 찾은 후 입국장으로 나갈 때 세관원에게 사전질의서를 통해 생성된 QR코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원은 수하물 태그를 일일이 확인한다. 수하물 태그에 검사표시가 되어있는 경우는 별도 세관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음식물, 의약품, 전자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한다. 전자기기 등을 다량으로 갖고 오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인식되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유의 필요가 있다. 드론, 무선 리시버, 워키토키, 위성 안테나, 셋톱박스, 고출력 전자기기 등의 제품은 반입이 불가하며,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반입 여부를 검토한다. 가공되지 않은 육류, 생선, 채소류 등은 모두 반입이 불가능하다.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물자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2021년 7월 15일부터 해외로부터 쿠바로 여행하는 여행객의 음식, 의약품, 개인위생

용품에 대해 수량제한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2025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6. 유관기관

###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52) 55 5202 9866
주소	Lopez Diaz de Armendariz 110, Col. Lomas de Virreyes Deleg Miguel Hidalgo, Mexico D.F
홈페이지	<a href="http://overseas.mofa.go.kr/mx-ko/index.do">http://overseas.mofa.go.kr/mx-ko/index.do</a>
비고	2024년 2월 14일 양국 수교 이후 주쿠바 한국대사관 설립작업이 진행 중이다. 개설 전까지는 주멕시코대사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 쿠바 한국문화센터 및 한글학교

전화번호	+53 7204-35-24
주소	Calle 18 y Avenida 1ro y 3ra, Playa, La Habana
홈페이지	<a href="https://www.facebook.com/PUAC.Caribe.Cuba/">https://www.facebook.com/PUAC.Caribe.Cuba/</a>
비고	舊쿠바 한인후손회관 이전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 쿠바상공회의소 Camara de Comercio de Cuba

전화번호	+53 7831-2404,7838-1321
주소	Calle 21 no. 661 esq. a A, El Vedado, La Habana, Cuba
홈페이지	<a href="http://www.camaracuba.cu">http://www.camaracuba.cu</a>
비고	사이트 보수작업중

#### ○ 대외무역부 MINCEX

전화번호	+53 7836-9549, 7838-0362
주소	Calle 23 esq Infanta, El Vedado, La Habana, Cuba
홈페이지	<a href="https://www.mincex.gob.cu/es/portal/">https://www.mincex.gob.cu/es/portal/</a>
비고	무역, 투자, 공적개발원조(ODA) 담당 부처

○ Procuba

전화번호	+53 7214-4340, 7214-4341
주소	Calle 10 No. 512 e/ 5ta y 31, Playa, La Habana, Cuba
홈페이지	<a href="http://www.procuba.cu">http://www.procuba.cu</a>
비고	대외무역부 산하 무역투자진흥기관

○ 외교부 MINREX

전화번호	+53 7836-4500
주소	Avenida de los Presidentes y Calzada, El Vedado, La Habana
홈페이지	<a href="https://cubaminrex.cu/es">https://cubaminrex.cu/es</a>

○ Granma

전화번호	+53 7881-3333
주소	General Su&acute;rez y Territorial, Plaza de la Revoluci&oacute;n, La Habana. Cuba
홈페이지	<a href="http://www.granma.cu">http://www.granma.cu</a>
비고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 Cubavision

전화번호	+53 7839-2545
주소	Calle M entre 23 y 21 El Vedado, La Habana
홈페이지	<a href="http://www.tvcubana.icrt.cu/">http://www.tvcubana.icrt.cu/</a>
비고	쿠바 정부 방송사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7. 물가정보

###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20 CUP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	단품	5.000
2	식품	볶음밥	1인분	12.000
3	식품	해물스프	1인분	12.000
4	식품	피자	1판	15.000
5	음료	커피	1잔	3.50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350ml	1.00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350ml	1.200
8	의료	항생제	12정	38.0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100
10	교통	합승택시요금	기본요금	3.0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5.000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5.0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25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10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0.200
16	여가	담배(Dunhill)	1갑	3.500
17	여가	맥주	360ml	1.500
18	임금	최저임금(쿠바국영기업 근로자)	법정최저(월)	87.5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450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2.250
21	식품	쌀	1kg	4.500
22	식품	식빵	한묶음	16.000
23	식품	고기(돼지/소/닭/ 태1)	1kg	60.000
24	식품	계란	10개	4.000
25	식품	망고	1개	2.000

26	식품	토마토	1LB	1.500
27	식품	오이	1개	1.200
28	식품	당근	1개	0.600
29	식품	파스타	500g	2.000
30	식품	환타	1캔	1.200
31	식품	스프라이트	1캔	1.200
32	통신	휴대전화 요금	1달	30.000
33	서비스	차량렌트	1달	3000.000
34	기타	건전지 (AA)	10개	20.000
35	통신	핸드폰	1개 (5년전 모델 기준 )	500.00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40.000
37	서비스	이발	1회	4.000
38	식품	술 (Rum)	750ml	19.000
39	식품	해바라기씨유	1L	8.00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10.000

<자료원 : KOTRA 아바나 무역관>

## 8. 출장정보

### 가. 환전

#### 통화체계

쿠바는 1994년부터 운영하던 이중화폐제도를 2021년 1월 폐지하며, 쿠바페소(불태환페소, CUP)를 단일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이중화폐제도 하의 태환페소(CUC)도 2021년 12월 이후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호텔, 렌터카회사 등 관광 시설은 카드(비자, 마스터) 결제만 가능하고, 민간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쿠바페소, 달러, 유로화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간혹 QR코드로 제3국 소재 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 화폐단위인 페소(Peso, MN, CUP)는 미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며(USD 1 = CUP 120), 환전시 3%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110.4 적용된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태환페소(CUC)의 경우 구조물, 불태환페소(CUP)의 경우 위인의 초상화가 지폐 도면에 그려져 있어 구분이 가능하다.

#### 환전방법

공항, 호텔, 시내에 위치한 환전소(Casa de Cambio)에서 환전한다. 또한 시중은행이나, 호텔 카운터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다. 단, 쿠바정부의 외화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현지화를 미 달러화로 환전하는 것은 불가하다. (2024년 5월 기준)

#### 신용카드 이용

Citibank, American Express 등 미국계 은행이 발급한 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다. 국내은행에서 발급한 Visa, Master카드 등은 사용이 가능하나, POS 단말기 또는 당일 통신환경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호텔, 렌터카 회사 등 외국환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일반 상점이나 식당, 가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ATM에서 카드로 현금 출금은 가능하다. 해외 사용이 가능한 직불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출국 전 사용국가를 사전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ATM 출금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현금 인출 시에는 통상적으로 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나. 교통

#### 교통상황

쿠바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편이다. 외국인의 경우 시내 이동 시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시외 이동 시에는 Viazul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택시는 정부택시 (노란색 세단 또는 VAN)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의 호객행위가 잦은 편이다. 운임은 흥정 가능하나, 대략적인 시세를 모를 경우 또는 스페인어 구사가 어려울 경우 과다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잦다. 24년 3월 1일 가솔린 가격을 리터당 0.25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하며 택시비용 역시 인상되어, 시간당 임차할 경우 15달러 정도 소요된다.

#### 버스

시내버스는 운행시간이 일정치 않고 운행노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외국인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도시 간 이동 시에는 Viazul 버스를 주로 이용하며, 사전에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다.

## 택시

택시는 일반택시와 합승택시(Colectivo)가 있다. 일반택시는 기본요금이 USD 10 수준이며, 탑승 전에 흥정이 필요하다. 합승택시는 정해진 노선을 왕복하는 택시로 가격이 저렴하다. 기본요금은 CUP 20(0.18달러)이다.

## 다. 통신

### 핸드폰

쿠바에서는 한국통신사의 로밍을 사용할 수 없다.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에 쿠바 SIM카드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방법은 아래와 같다.

CubacelTur (데이터 6Gb, 통화 100분, SMS 100통, 가격은 USD 40 수준)

- <https://cuba.dtone.com> 접속
- Suena Cuba 선택
- Tourist SimCard 선택
- 개인정보 입력
- 결제
- 아바나 공항 도착 후 Etecsa 사무실에서 수령

공항 도착 후에도 구매가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 인터넷(와이파이)

2018년 12월, 3G 서비스가 상용화되었고, 2019년 11월 4G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용료가 비싸다. 와이파이에는 주로 호텔이나 공원 등 wifi존에서 이용하며, 선불카드 구입이 필요하다. 국영통신사(Etecsa)가 판매하는 wifi 선불카드는 이용료가 1시간에 CUP 24이며, 호텔 또는 국영통신사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라. 관광명소

### ○ 바라데로 해변(Varadero)

도시명	바라데로
주소	Varadero
운영시간	전일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쿠바의 외국인 관광객 휴양지. 해변을 따라 호텔이 있고, 카리브해의 연녹색 바다색을 볼 수 있다. 쿠바 유일의 18홀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 내에서 혁명 전 미국의 듀퐁가(家) 소유였던 별장을 볼 수 있다(동 별장은 관광객용 호텔 및 식당으로 사용 중).
비고	아바나에서 차로 2시간 거리

### ○ 헤밍웨이 박물관(Finca Vigia)

도시명	아바나
주소	La Finca La Vigüea fue la residencia de Ernest Hemingway en San Francisco de Paula, en La Habana, Cuba, posteriormente declarada museo
운영시간	10:00~16:00
휴무일	일요일
명소소개	아바나 시내에서 택시로 20분 정도 가면 미국 소설가 헤밍웨이가 살았던 집으로 1960년 쿠바혁명 이후 헤밍웨이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음. 타자기, 동물박제, 9000여 권의 장서가 있음.
비고	입장료 150 CUP

○ 호세마르티 기념관(Memorial Jose Marti)

도시명	아바나
주소	Calle Paseo y Ave. Independencia. Plaza de la Revoluciön. La Habana, Avenida Paseo, La Habana
운영시간	09:00~16:00
휴무일	일요일
명소소개	아바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호세 마르티 기념탑에는 쿠바의 독립전쟁 영웅 호세 마르티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아바나 전경을 볼 수 있다.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 산크리스토발(San Cristobal)

도시명	아바나
전화번호	+53 7 8601705
주소	San Rafael No 469 E/ Lealtad y Campanario, La Habana Cuba
가격	1인당 3000~4000 CUP
영업시간	12:00~24: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아바나 구시가지에 위치함.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 것으로 유명하며, 아바나 구시가지, 쿠바 혁명과 관계된 다양한 사진과 물품이 전시되어 있어 쿠바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음.

○ 비스타마르(Vistamar)

도시명	아바나
전화번호	537 2038328
주소	Ave 1ra y 22, Playa
가격	1인당 CUP 4,000
영업시간	12:00~24:00
휴무일	없음
소개	해변가에 위치한 식당으로 경관이 좋음. 해산물 요리가 유명함.

○ 라 에스페란사(La Esperanza)

도시명	아바나
전화번호	537 2024361
주소	Calle 16 e/ 1ra y 3ra, playa
가격	1인당 CUP 3,000
영업시간	월~토요일 19:00~24: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가정집 분위기의 고급 레스토랑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한국식당  
없음.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멜리아 코이바(Hotel Melia Cohiba)

도시명	아바나
주소	Calle 1ra, La Habana
전화번호	+53 7 8333636
홈페이지	<a href="https://www.melia.com">https://www.melia.com</a>
숙박료	USD 170
소개	아바나시 Vedado 지역에 위치한 5성급 호텔

○ 나시오날 호텔(Hotel Nacional)

도시명	아바나
주소	Calle 21 Vedado, La habana
전화번호	+53 7 8363564
홈페이지	<a href="https://www.hotelnacionaldecuba.com">https://www.hotelnacionaldecuba.com</a>
숙박료	USD 170
소개	고풍스런 디자인으로 설계된 호텔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호텔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게스트하우스

○ 까사 케티(Casa Ketty)

도시명	아바나
주소	Calle 27 No 202 e/ L y K Vedado, Habana
전화번호	52431424
숙박료	USD 50/일

○ 까사 로시(Casa Rosy)

도시명	아바나
주소	Ave 19 No 3015 Playa, Habana
전화번호	53439755
숙박료	USD 50/일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사. 치안

### 치안상황

시내 곳곳에 경찰이 있기 때문에 대로변은 비교적 치안에 문제가 없으나, 아바나 구시가(Old Havana)는 주간에도 소매치기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해안도로 Malecon(말레콘) 야간 보행 시 생계형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단신으로 여행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도 종종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거부의사를 단호히 할 것).

### 응급상황 대처요령

○ 교통사고

- 쿠바에서 개인 명의 차량을 소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출장자는 렌터카를 이용함.

- 렌터카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렌트카 사무소 및 경찰서(106)를 접촉하여 사고신고 후 보험처리 접수
- 현지인이 운전 중인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경찰서(106) 및 외국인 전용 병원(Cira Garcia, +53-7204-2811), 앰블런스(104) 등을 연락

○ 여권/지갑 분실

- 여권/지갑 등 분실 시 우선적으로 인근 경찰서에 분실신고 및 신고접수증 수령
- 쿠바에는 우리나라 공관이 부재하며, 관할 공관은 주 멕시코 대사관이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은 KOTRA 아바나 무역관에서 접수 가능
- 단, 접수된 서류를 주 멕시코 대사관으로 전자발송 및 여권발급까지는 1~2일 내 처리가 가능하나, 발급된 여권을 DHL로 수령하기까지 약 7-10일이 소요된다.

○ 응급 전화번호

- 경찰 : 106
- 앰블런스 : 104
- 소방서 : 105

## 9. 생활정보

### 가. 주택

####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거주지의 경우, 외교관이나 기관/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쿠바 정부 부동산 업체가 운영하는 정부 소유 주택 또는 일부 외국인 소유 주택에만 입주가 가능하나,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특히 거주 환경이 양호한 주택은 대부분 전임자-후임자 간 승계입주를 하거나, 외국기관 명의로 임차하여 사택형태로 운영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집(외국인 기준에서 살만한 집)을 구하기까지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외국기업의 현지 대표자가 아닌 일반직원의 경우, 정부 소유 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의 임차가 가능하나, 2016년 미국과의 수교 이후 해외 기업들의 지사 설립 증가 등으로 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자 주택 월세가 폭등함과 동시에 공급은 거의 증가가 없으므로 주택 입주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이 쿠바를 떠남에 따라 주택임차상황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외국인들이 유입됨에 따라 다시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차료는 주택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가격만 비교하더라도 타국가 주요 도시에 비해 매우 비싼편에 속한다.

아울러, 민간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파견회사의 형태 등에 따라 이삿짐(컨테이너) 수령을 위해서는 정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바, 주택임차 전 해당 내용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전화

쿠바에서 전화나 인터넷 관련 모든 통신서비스는 국영기업 에텍사(ETECSA)가 관리한다. 핸드폰의 경우 외국인도 여권을 지참하여 전화 번호 발급(심카드 구입)이 가능하다.

#### 전압/플러그

쿠바는 110V와 220V를 혼용하고 있다. 장소에 따라 변환 플러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전력/전압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냉장고, TV 등 고가의 가전제품의 경우 전압안정장치(Regulador)의 사용이 권장된다.

#### 식수

물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수퍼, 주유소 등). 노후한 배수관 등으로 인해 수도물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수도물을 이용한다면 끓여서 마셔야 한다.

###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 구매편

일반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CIMEX, SASA 등 수입권한이 있는 지정 국영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구매 시 신차 800%, 중고차 1,500%의 세금 부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2월 개인의 완성차 및 부품 수입 허가조치 발표되어, 개인이 국영 렌터카업체 REX에서 판매하는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차량가격

쿠바에서 자동차 수입은 정부지정 국영기업만 수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격도 정부가 책정한다. 신차의 경우 소비자가격은 수입가격의

800%에 달하는 특별소비세로 인해 일반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례로, 산타페 2,000cc 차량의 경우 소비자가격은 35만 달러에 달한다.

중고차의 경우도 시장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주요 국산 차량의 가격은 아래와 같다.

- 현대 싼타페 (2017년식) : USD 72,000
- 현대 투싼 (2017년식) : USD 55,000
- 현대 쏘나타 (2017년식) : USD 60,000
- 기아 피칸토 (2017년식) : USD 38,000

아울러,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중고차량은 국영 렌터카 회사에서 관리하던 임차차량으로, 대부분의 경우 높은 마일리지 및 부실한 관리 등으로 인해 실제 인수 후에도 개별적인 수리 및 부품 조달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국영 렌트회사에서 임차를 할 경우 2,000CC 승용차의 월임차료는 USD 2,500~3,000 수준이다.

###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쿠바에서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단,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거주증 발급시)할 경우, 쿠바 운전면허증 발급이 필요하다.

## 다. 은행 계좌 개설

### 주요은행

일반인들이 개인계좌를 개설 시에는 주로 Metropolitano, BPI(Banco Popular de Ahorro)를 이용한다. 기업(상업)용 계좌는 BFI, BICSA, BNC, BEC 등 은행이 있다.

### 계좌 개설방법

쿠바인 및 거주증을 가진 외국인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구비 서류 : 신분증 또는 여권
- 계좌 종류 : 쿠바화폐(CUP) 및 외화화폐(USD) 계좌

## 라. 교육

### - 주요 국제학교

#### o International School of Havana

도시명	Havana
커리큘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	APPLICATION FEE: 100달러 ENROLMENT FEE: 4,000달러 3/4세: 5,456 달러 5세-Grade 5: 12,806 달러 Grades 6 - 8: 12,964 달러 Grades 9 - 10: 14,676 달러 Grades 11 - 12: 15,106 달러
홈페이지	www.ishavana.org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현지학교

o Escuela Preuniversitaria Lenin IPVCE

도시명	아바나
커리큘럼	고등학교
학비	쿠바인은 무료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마. 병원

o Clinica Central Cira Garcia

도시명	아바나
주소	Ave. Lazaro e/ 18 y 20, Pya, La, C&acutes;rdenas, La Habana
전화번호	537 20428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병원임

o Hospital Hermanos Ameijeiras

도시명	아바나
주소	Calle San L&acutes;zaro # 701 esq. a Belascoa&iacute;n, Centro Habana, La Habana
전화번호	537 8761210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Tiendas por Departamentos Carlos III

도시명	아바나
주소	Avenida Salvador Allende, La Habana, Municipio Plaza
홈페이지	<a href="http://www.carlostercero.ca">http://www.carlostercero.ca</a>

○ Tiendas por Departamentos La puntilla

도시명	아바나
주소	Ave 1ra e/ A y B playa, La Habana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식품점

○ Centro Comercial 3ra y 70

도시명	아바나
주소	Avenida 3ra y calle 70, Playa
취급 식료품	식품 전반

○ Centro Comercial Ditta

도시명	아바나
주소	Calle 84 entre 7ma y 9na, Playa
취급 식료품	식품 전반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기타 편의시설

○ Varadero Golf Club

도시명	바라데로
주소	Autopista Sur, Varadero
홈페이지	<a href="https://www.varaderogolfclub.com">https://www.varaderogolfclub.com</a>
소개	쿠바의 유일한 18홀 골프장으로 국제적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Marina Hemingway

도시명	아바나
-----	-----

주소	Calle 248 y 5ta Ave, Marina Hemingway, Playa
홈페이지	<a href="http://www.hemingwaycuba.com/">http://www.hemingwaycuba.com/</a>
소개	보트, 낚시, 수영, 스낵스쿠버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음.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Liberation Day	2024-01-01	2024-01-01
Victory Day	2024-01-02	2024-01-02
65th Anniversary of the Revolution	2024-01-03	2024-01-03
Good Friday	2024-03-29	2024-03-29
Labour Day	2024-05-01	2024-05-01
National Revolutionary Holiday	2024-07-25	2024-07-25
National Revolutionary Day	2024-07-26	2024-07-26
Independence Day	2024-10-10	2024-10-10
Christmas	2024-12-25	2024-12-25
New Year's Eve	2024-12-31	2024-12-31

## 10. KOTRA 무역관 안내

### ○ 아바나 무역관

####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Avenida 3ra, e/.76 y 78, Edificio Santa Clara, Oficina 412, Miramar Trade Center, Habana, Cuba
- 전화: (53-7) 204-1020, 1117, 1165
- 팩스: (53-7) 204-1209

#### 공항-무역관 이동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수속을 마친 후 환전소(CADECA)에서 환전 후 택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편이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택시요금은 소형차량은 USD 25, 중형 밴은 USD 50 수준이다.

\* 참고사항: 공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택시기사가 있으나 바가지 요금을 씌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택시를 탑승해야 한다.

##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제40회 아바나 국제박람회 (Feria Internacional de La Habana)	2024-11-04 ~ 2024-11-09	Expocuba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